



승업 홈런 일본 진출 통산 90호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이 25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경기 6회말 1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시즌 5호 홈런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3점포 시즌 5호...이병규는 4타수 1안타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본 진출 네번째 시즌 만에 통산 90홈런을 작성했다. 이승엽은 25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홈 경기에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팀이 8-0으로 앞선 6회 말 1사 1, 2루에서 우완투수 다카사키 겐타로가 던진 시속 131km 짜리 몸쪽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측 펜스를 넘기는 3점 홈런을 뽑았다. 이로써 지난 18일 히로시마전에서 솔로 홈런을 때린 뒤 7일, 6경기만에 시즌 5호

이자 일본 무대 통산 90홈런을 기록했다. 이승엽은 지바 롯데 마린스 시절이던 2004년 홈런 14개를 때린 뒤 2005년 30개의 아치를 그렸고 지난 해 요미우리에서 41개로 센트럴리그 홈런 2위에 올랐다. 이날 5타수 1안타를 때린 이승엽의 시즌 타율은 0.280에서 0.276(87타수 24안타)로 떨어졌다. 요미우리는 8이닝 동안 6안타 1실점으로 막은 우완투수 가네토 노리히토의 호투에 힘입어 12-1로 승리했다.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도 이날

나고야돔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경기에서 중견수 겸 5번 타자로 나서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이병규는 8회 말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우완투수 빅터 마르테가 던진 슬라이더를 때려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홈을 밟았다.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이병규의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07(88타수 27안타)로 약간 떨어졌다. 주니치는 홈런 2개로 타점 3개를 올린 후쿠도메 고스케를 앞세워 5-1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

서튼 '서튼 수비' KIA 자멸



야구에서 수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승부처에서 수비 실책이 나오면 어이없는 실점으로 연결되고, 투수도 흔들린다. 그리고 자멸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KIA는 2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원정경기에서 4번 타자 겸 좌익수 서튼의 어이없는 실책성 수비 플레이가 연달아 터지면서 3-7로 자멸했다. 서튼은 타석에서도 4타수 무안타로 삼진 2개로 4번 타자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전날 삼성을 2-1로 꺾고 이어가던 3연승 행진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5·6회 결정적 실책 팀 상승세에 찬물 삼성에 3-7 대패...이대진 시즌 2패째

불운의 기운은 2회부터 감돌았다. KIA 선발 이대진은 2회초 1사 3루 상황에서 삼성 조동찬 타석때 폭투로 1점을 헌납한 뒤, 4회에도 2루타 1개와 볼넷 1개를 내주며 추가 1실점,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때 그동안 2할타로 침묵하던 이용규가 나섰다. 역전 3타점 2루타로 부상을 딛고 재기한 선배 이대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준 것. 이용규는 0-2로 뒤진 5회초 2사 만루에서 상대 바뀐 투수 오상민을 상대로 좌익선상에 특 떨어지는 싹쓸이 역전 2루타로 스코어를 3-2로 뒤집었다. 4회까지 2안타로 침체했던 KIA타선도 상승모드로 바뀌었다. 하지만 좌익수 서튼의 어이없는 수비플레이가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튼은 5회말 수비때 1사 1, 3루서 심정수의 좌익수 앞 평범한 안타를 뒤로 흘리면서 2점을 내줬고, 스코어는 다시 3-4로 뒤집어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서튼은 이어진 6회에도 1사 1루 상황서 상대 9번 김강희의 평범한 좌전 안타를 또 다시 빠뜨려 1점을 추가 헌납했다. 스코어는 3-5로 벌어졌다. KIA로서 서튼이 뒤로 흘린 2안타 모두 외야 플라이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이었기에 더욱 뼈아팠다. 삼성은 곧바로 승리 방정식인 '쌍권총' 권오원-권혁을 마운드에 올려 승리를 굳혔다. 한편 이대진은 시즌 2패(1승)째를 떠안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강진 성화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전남도민체육대회 태권도 남자 라이트급 경기에서 보성군 대표 고광일(오른쪽)이 무안군 대표 정찬승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보성 제인모, 대회 4연패 질주

육상 남 5,000m 우승 최강 확인 김달은·정다래(여수) 수영 2관왕

■ 제46회 전남도민체전

제인모(보성)가 제46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펼치며 대회 4연패 위업을 달성했고, 김달은(여수)과 정다래(여수)는 이에 질세라 금빛 물보라를 일으키며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제인모는 25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5천m에서 15분18초67을 기록하며 우승해 지난 2004년부터 최강자로 군림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달은도 강진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자부 자유형 50m와 혼계영 200m에서 각각 26초94와 2분06초40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정다래도 여자부 평영 50m와 혼계영 200m에서 우승, 2관왕에 등극했다. 조성모(신안)와 한규철(보성)도 이틀값을 했다. 조성모는 남자 수영 자유형 200m에서 1분58초09로 우승했으며 한규철은 접영 100m에서 56초65로 1위에 올랐다. 태권도 남자부에서는 권급 윤찬진(담양), 밴텀급 박태열(고흥), 라이트급 김길성(영암), 미들급 김진욱(보성)이 각각 우승했다. 이날 경기가 종료된 사이클에서는 나주시

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2위 강진군, 3위는 함평군이 차지했다. 역시 경기가 종료된 골프는 목포의 독무대였다. 목포는 종합우승을 비롯해 남녀 개인전을 싹쓸이 하며 종합우승 가도에 청신호를 켜다. 축구에서는 강진군이 8강에 진출한 가운데 장흥군과 해남군, 순천시가 16강에 올랐다. 테니스에서는 강진, 구례, 광양, 목포, 해남, 여수가 각각 8강에 진출했으며 정구는 보성, 영광, 나주, 무안, 순천, 목포가 8강에 진출했다. 배구에선 곡성, 장흥, 순천, 보성이, 탁구는 보성, 광양, 고흥, 강진, 여수, 함평이 각각 8강에 진출했다. 대회 첫째날 경기결과는 목포,여수, 광양이 종합우승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보성이 단체종목에서 모두 승리하며 복병으로 떠올랐다. /김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4각 드라이버 써 볼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어떤 클럽을 쓰느냐에 따라 용품시장에서 그 클럽의 판도가 바뀐다. 미국 용품업체 나이키골프가 지난 해 개발, 올해 2월부터 국내에도 출시된 사각헤드 드라이버, 즉 'SO SUMO 2 (소모스퀘어)'를 우즈가 사용할 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경쟁업체 간 제품의 효율성 논쟁까지 벌어졌지만 우즈가 6월 US오픈이 열릴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몬트 오크몬트컨트리클럽에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소모'를 꺼내들었는데 마지막 날은 세 번을 제외하고 드라이버샷을 모두 페어웨이에 안착시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AP통신이 25일 전했다. 우즈는 연습라운드가 끝난 뒤 "문제는 와코비아(챔피언십)에서 내가 이걸 사용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드라이버의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이키 제품 '소모스퀘어' 와코비아서 사용여부 관심

고 말해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와코비아챔피언십에서 사각드라이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소모'는 생김새도 기존의 드라이버와 전혀 판판으로 네모나지만, 타구음도 독특해 마치 '속이 빈 정랑음료 강통이 라켓볼 코트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는 등 혹평을 받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